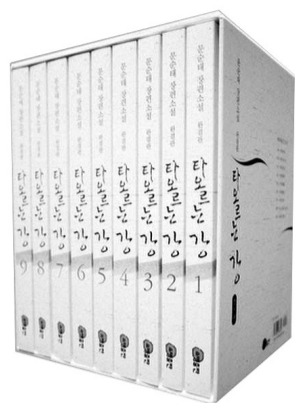


나주에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문순태 작가 장편 소설 모티브 내년 3월 개관...육필 원고 등 전시 창작교실·인문학 강좌 개설

문순태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전 9권)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민중운동의 발생 과정을 역동적으로 풀어낸 수작이다.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작가 정신과 웅담한 상상력으로 빛어낸 웅혼한 서사다.



내년 3월 나주에 문순태 작가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9권)을 모티브로 한 문학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소설의 배경이 됐던 영상상. <나주시 제공>

작품에는 나주 공상면 토지 수탈 사건을 비롯해 노비세습제도 폐지, 동학운동 등 구한말과 근대를 가로지르는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등 주요 사건도 서사화돼 있어 소설적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나주를 중심으로 근현대 민중들의 역사를 그렸던 '타오르는 강'을 모티브로 한 문학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명 '타오르는 강 문학관' (문학관)이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순태 작가에 따르면 작가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12일 나주시청에서 문학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학관은 나주시 예방로 3871-4에 자리한 근대 건축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문 작가의 작업실이 마련되고 소설 '타오르는 강'과 관련한 자료, 육필 원고 등이 전시된다. 또한 문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문학 관련 도서 3000권을 비치한 도서관도 들어선다.

문 작가는 "1~2년 전부터 문학관 조성 관련 시와 문학 단체 등과 의견교환을 해왔다"며 "문학관이 조성되면 '타오르는 강'을 모티브로 세미나 및 인문학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의 젓줄 영산강의 중심 도시가 나주인데, 향후 나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21세기는 우수한 문화자원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경쟁을 하는 시대인 만큼 향후 들어설 문학관이 주요 거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학관이 개관하면 문학 행사 외에도 지역민,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창작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문학관 조성을 위해 나주시는 그동안 전국 문학관 현장을 답사했으며 일제 강점기 구로즈미 가옥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각도로 밑그림을 그려왔다.

아울러 나주학회 (회장 최영관)에서는 '타오르는 강'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등 2022년과 2023년 2회에 걸쳐 '타오르는 강 학술대회'를 열었다.

영산포발전협의회 (회장 이기준)는 문 작가의 시집 '흥어' 출판기념회를 영산포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나주축제 기간 동안 '타오르는 강' 부스를 운영하는 등 문학관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한편 윤병태 나주시장은 "향후 문학관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학적 감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피드백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타오르는 강 문학관"이 향후 '영산강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작가의 제자인 박일우 작가는 "타오르는 강"에는 음식을 비롯해, 복속, 풍속 등 지역의 웅숭깊은 문화가 깃들어 있다"며 "특히 남도 정신의 정수인 토박이말의 보고인 만큼 이를 활용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아시아 시각으로 본 '나주 저항시인'

'조선의 저항시인...' 日서 발간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기획 이석성·정우채·박준채 등 조영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하기와의 시는 "사생적 표현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와 3부는 나주 출신 저항시인들의 작품과 항일연구자의 논고

로 구성돼 있다.

나주 출신 저항 작가 이석성(본명 이장신)은 1934년 신동아에 소설 '제방공사'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193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홍수전후'라는 작품으로 최중심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앞서 1932년 서양의 아나키스트 말라테스타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선구자 말라테스타를 애도한다'를 집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주 출신 저항시인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대표적 저항 시인들을 다룬 책이 최근 일본에서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기획을 맡은 '조선의 저항시인-동아시아에서 바라본다'가 일본 아카시 쇼텐에서 발간됐다.

책은 이석성, 정우채, 박준채를 중심으로 운동주, 이육사, 이상화 등 대표적 저항시인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나주의 저항시인을 매개로 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시각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특히 이석성에 대해 "시 '우리들의 선구자 말라테스타를 애도한다'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첨가돼 있다"며 "1932년 이석성이 집필한 시 '우리들의 선구자 말라테스타를 애도한다'와 일본 시인 하기와의 교지로서가 말라테스타에 관해 쓴 시가 비교 고찰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책에서 이석성과 하기와의 교지로서의 시를 비교 고찰했다. 그는 이석성의 경우는 "조선 식민지 현실을 강하게 인식, 조선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이 시에 생생히 표현돼 있다"고 보면서

1부에는 이석성의 '제방공사', 정우채 '단결하자', 박준채 '회상' 등 모든 작품이 완역과 함께 이에 대한 항일연구자의 연구가 실렸다.

2부에는 운동주, 이육사, 이상화 등을 다룬 논고들이 수록돼 있다.

3부에는 이석성의 육필원고를 접하고 '—그 놀라움과 감동의 언어'를 주제로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문병관시인기념사업회 회장)의 부친인 이석성에 대한 회고문 '눈 내리는 동토에도 꽃은 피는가'를 비롯해 '이석성-저항시에서 저항소설로', 박준채의 발굴시(KBS라디오 인터뷰), '정우채의 삶과 문학' 등 관련 글들이 게재됐다.

한편 김 교수는 "이석성이 말라테스타의 추도하는 마음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생사 불사할 정도로 격렬하게 묘사한 것은, 그의 시심이 독립 의지로 점철돼 있었기 때문임이 이번 비교, 고찰로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한 이사장은 "나주 출신 저항시인들은 당시 항일저항시를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운동을 병행했다"며 "저항시 활동 등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오늘 젠더포럼 재출범식

광주젠더포럼 (집행위원장 조옥자)은 지역 여성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협력기구다. 지난 2012년 발족, 올해 11주년을 맞아 최근 '광주젠더포럼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제도약 연구' 등을 진행했다.



'젠더폭력예방교육 방향성 논의' 토론회 모습.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젠더포럼이 '재출범식 및 제12회 정기총회'를 연다. 14일 오후 4시 30분 라마다플라자 총정호홀 라벤더홀.

포럼은 재출범식 퍼포먼스를 비롯해 분과별 의제 발표, 젠더포럼 성과공유, 정기총회 및 회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광주젠더포럼은 기존 지능별 11개였던 분과를 올해 여성일자리분과, 가족돌봄분과, 문화다양성

분과 및 성주류화분과, 여성인권분과, 기후정의분과 등 총 6개로 개편했다. 그동안 부모교육지원조례 제정,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은 물론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이나 여성가족친화경영 방안 마련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한 바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올 한해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전남문화재단, 15~19일 나주정미소...공연·발표회·사업설명회 등

1년 간 문화예술 지원 결실을 수확하는 성과공유회.

전남문화재단이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美소공유'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나주정미소(나주시 성북동 77-1)에서 연다.

창작공연 7팀과 아트·테크 미디어아트 19팀, 시각예술 창작 결과물 70점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성

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내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아트&테크 융복합 창·제작지원사업 등), 전남문화예술 지원사업(지역특성화, 공연장 상주) 등 5개 사업에 참여한 39개 단체의 성과발표를 통합해 추진하는 자리다.

15일 개막식에서 마당극, 관현악, 국악, 재즈 등

창작공연 7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및 예술인 '남장'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시각예술 및 아트테크 미디어아트 전시도 19일까지 5일 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도 병행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가 예술인에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민도 자유롭게 참여해 1년 간 쌓아온 예술인들의 성과를 나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